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원 2길 6번지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확장 타당성 재조사 통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서 심의·의결... 총사업비 예타 금액보다 46.7% ↑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시 교통 지·정체 해소, 산업시설 접근성 향상 효과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 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2일 기획재정부 재정부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 안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타당성 재조사 결과 총사업비는 예타 당시 2,299억원에서 3,372억원으로 증가해, 1,073억원(46.7%)이 증가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 사업은 2017년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16~2020년)'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됐으며, 김제시 금구면 김제IC에서 익산시 왕궁면 삼례IC까지 18.3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여 2028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20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기본설계 과정에서 안전성 증대를 위해 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고려한 교량 계획 변경, 교량 공사용 가시설 및 가교 반영, 배수시설 설계기준 반영, 방음벽 추가 반영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물가·지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3,017억 원으로 예타 대비 31.2% 증가

됐으며, 총사업비가 15% 이상 늘어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를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및 KDI를 대상으로 평일 출퇴근 시간대 및 주말 상습 지·정체 해소, 혁신도시, 새만금개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조기 정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내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및 2029년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응 필요성 등을 설명하며,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 사업 신속 추진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전북자치도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은 지난 6일 KDI에서 개최된 사회적 반시설 분과위원회 정책성 평가에 참석해 "올해 1월에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발전을 위해 SOC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고속도로 확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전북 도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사업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기도 했다. 호남고속도로는 호남지역을 충청권과 수도권으로 연결해 주는 핵심적인 고속도로망으로 1970년에 개통된 후 54년이나 경과되어 선형 불량으로 교

통사고에 취약하고, 논산 분기점에서 익산 분기점까지는 8차로, 익산 분기점에서 삼례 나들목까지는 6차로로 운영 중이나, 김제~삼례 구간 18.3km는 4차로로 남아 있어 차로 수 감소에 따른 병목현상으로 출퇴근 시간대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오랫동안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 통과로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되면 도로용량 증대로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 해소되고, 새만금과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시설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건설업체 수주 기회 확대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투자유치가 증가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상황에서 지역 핵심 SOC의 조기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후속 절찬인 총사업비 협의,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이 신속히 진행돼 2028년 개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 활성화 포럼 및 비전 선포식'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정창욱 한국관광공사 마이스 실장,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장, 이필근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장, 오성환 한국POC협회장, 김신 한국전주시주최자협회 부회장 등 마이스 업계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이스 산업, 전북 신성장 동력으로'

전북자치도 마이스 활성화 포럼 · 비전 선포식

마이스 산업 발전 전략 · 유치 기반 조성 방안 제시 김 지사 "주축 산업 등 종합적 고려, 청사진 그릴 것"

전북특별자치도가 2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 활성화 포럼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마이스 산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을 바탕으로, 전북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도의회의장, 우범기 전주시장, 정창욱 한국관광공사 마이스 실장,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장, 이필근 한국전시장운영자협회장, 오성환 한국POC협회장, 김신 한국전주시주최자협회 부회장 등 마이스 업계 주요 인사와 관계자,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포럼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문화와 관광, 산업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비전을 선포하며, 전북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결합하여 지역 특화 마이스 전략을 강화하고, 국제중지박람회와 같은 지역 특화 행사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비전 선포식에 이어 진행된 포럼에서는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주제 발표, 마이스 전문가 집중토론이 이어졌다. 기초 강연에서 문승우 한국컨벤션 전시산업연구원장은 마이스 산업의 지역 경제적 파급효과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방안을 강조하며, 전북이 마이스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병로 건국대학교 교수는 전북에서 개최되는 국제중지박람회의 경쟁력 강화와 이를 활용한 지역 특화 마이스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이상열 고양컨벤션뷰로 사무국장은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전담 조직의 중요성과 전북의 컨벤션센터 건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했으며, 한희정 대전관광공사 마이스뷰로팀장은 마이스 유치 전략과 실무 경험을 공유하며, 전북이 글로벌 마이스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이어진 마이스 전문가 집중토론에는 최재길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장, 박래준 수원컨

벤션센터 본부장, 이윤경 케이 케이 대표가 합류하여 마이스 행사 유치 기반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을 나누고, 향후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 산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게 행사를 마무리했다. 마이스 산업은 행사 참가자 1인당 평균 소비액이 일반 관광객의 약 두 배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으로, 지역의 주축 산업간 높은 시너지 효과와 고용 창출 기여도가 높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과 투자가 지속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17년 '전라북도 마이스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마이스 산업 종합 계획 수립, 전북 마이스 뷰로 출범, 마이스 아카데미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 마이스 육성센터' 설립 등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주컨벤션센터, 새만금 국제공항 및 신항만, 복합 리조트 등 마이스 인프라와 함께 이차전지, 농생명, 바이오, 문화, 관광 등 주축 산업과 전문 인력 양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북의 마이스 산업 활성화 청사진을 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래는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것으로 마이스 산업을 통해 전북이 대한민국의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명예문화관광축제 www.firefly.or.kr
2024 자연특별시 무주방문의 해
제28회 **무주방딴분축제**
2024. 8/31(토) - 9/8(일)
12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지정 가능해진 지구·특구·단지의 추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새만금 고용 특구와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은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로 내년 상반기 내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 도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 333개의 특례를 반영했다. 여기에는 농생명·문화관광·고령친화·미래첨단·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 육성을 담당할 지구·특구·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 무인이동체종합실증단지, 농생명산업지구, 연구산업진흥단지, 새만금 고용 특구 등 전북의 산업환경과 정책 여건에 맞는 14개 지구·특구·단지를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정부 부처의 권한을 도지사가 일부 이양 받아 특화산업을 집중적으

새만금 고용 특구 등 2곳, 내년 상반기 지정 가능성

전북자치도, "14개 지구·특구·단지 중 추진 속도 가장 빨라"

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자치도의 출범 의의와 성과를 도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이들 지구의 조속한 지정과 안착이 핵심이라고 보고 추진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이 중 가장 빠른 진척을 보이는 것은 새만금 고용 특구와 농생명 산업특구다. 새만금 고용 특구는 새만금 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에 원활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최근 새만금에 이차전지와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투자가 붐을 이루면서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새만금 고용 특구를 지정하고 고용과 인력 수급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새만금 고용 특구는 기본구상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세미나를 추진했고, 다음 달에는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게 된다. 도는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고, 특구를 지정 고

시해 내년에는 새만금 고용서비스 지원기관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농생명 산업지구는 농생명 산업에 공을 들이고 있는 도가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지구로 꼽힌다. 지구 내에서 농지 전용 권한을 도지사가 갖게 돼 생산과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의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고 거점으로서 육성하는데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토지 이용 권한을 쉽게 바꾸지 못하거나 바꾸는 데 장시간이 걸렸던 기존의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종자, 미생물, 동물약품 등 관련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을 반영하듯 농생명 산업지구 신청에는 많은 지역이 불렀다. 도내 14개 시군에서 19개소가 농생명 산업지구 지정에 도전장을 내밀었고, 이번 달에 신청 지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도는 심사가 완료되면 워크숍과 사업계획 보완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는 농생명 산업지구를 2곳에서 많게는 4곳까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